



세상 모든 것의 원리
김영태 지음

삶에 내재된 물리 법칙

우리를 둘러싼 사물들은 어떤 원리로 작용할까? 누구나 한 번쯤 가졌을 의문이다. 인간은 오래 전부터 사물의 이치나 원리를 탐구해 왔다. 그 결과 자연에만 의존해왔던 삶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자연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아주대학교 물리학과 김영태 교수가 펴낸 '세상 모든 것의 원리, 물리'는 우리 삶 곳곳에 작용하고 있는 물리의 법칙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다. 저자는 일반인들이 물리를 어렵고 진부한 것으로만 여기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껴 책을 집필했다고 한다. 책은 물리의 모든 원리와 흐름을 알기 쉽게 소개하면서도 고대 창조신화에서부터 갈릴레이와 뉴턴을 거쳐 1800년대 맥스웰, 볼츠만 시대에 이르기까지 물리의 과정을 펼쳐낸다.

흥미로운 예시가 덧붙여져 있어 독자들의 호기심과 창의력을 일깨운다.

〈다른 세상·1만48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고대 그리스의 영웅들
그레고리 나지 지음

문명과 교양의 뿌리 탐구

영웅에 대한 고대 그리스의 개념은 지금의 관점과는 많이 달랐다. 또한 역사적인 맥락의 분석을 통해서만 아킬레우스와 오디우스, 오이디푸스, 헤라클레스와 같은 영웅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하버드대학교 그리스 고전문학 석좌 교수인 그레고리 나지가 펴낸 '고대 그리스의 영웅들'은 영웅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다룬다. 저자는 대학에서 가르치고 정리해온 강의록을 바탕으로 문명과 교양의 뿌리에 대한 탐구를 제공한다.

책에 등장하는 모든 기록과 작품들은 고대 그리스어로 돼 있는 것을 번역해 소개하고 있으며 특별한 내용에 대해서는 원문을 함께 소개하고 있다.

또한 고대 그리스의 항아리 표면에 새겨진 그림과 같은 유물들의 사진들을 통해서도 부족한 내용을 보충한다.

〈시그마북스·4만5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환관 이야기

미타무라 다이ске 지음



“강대한 권력은 비밀을 낳고 비밀은 권력을 강대하게 하는 일반 원칙은 여전히 작동한다. 비밀이라는 말을 ‘정보의 독점’이라는 현대의 언어로 바꿔보면 그것은 더욱 분명해진다... 반드시 권력에 직속해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비서 그룹이 존재하게 되어 있다. 또한 권력자에 밀착해 정보를 쥐고 활개를 치는 패거리가 나타나게 된다. 그들이야말로 환관적 존재일 것이다.” (본문 중에서)

정치적 관점에서 ‘환관’은 단순히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비선 실세’, ‘문고리 권력’, ‘그림자 실세’는 권력을 등에 업고 전횡을 일삼는 측근들을 일컫는다.

지난해 교수들이 선정한 사자성어는 ‘지록위마’(指鹿爲馬)였다. 사슴을 가리



환관이 권세를 떨쳤던 것은 군주와 대신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이다. 사진은 드라마 ‘해를 품은 달’(왼쪽)과 ‘왕과 나’.

켜 말이라고 부른다는 뜻이다. 정치적으로 뒷사람을 농락해 자신이 권력을 휘두르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식인들은 ‘환관정치’의 폐해가 어느 해보다 만만치 않았다고 봤다.

권력과 환관은 왜 통(通)할 수밖에 없을까? 동서고금 역사는 환관정치의 폐해가 적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실 환관은 만들어진 성(性)이다. 여자도 남자도 아니다. 이 비인간화된 존재로 연계되는 여러 요소들은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환관에 관한 책이 나왔다. 미타무라 다이ске 전 리스메이칸 대학 명예교수는 이 분야의 독보적인 연구자다. 그가 펴낸 ‘환관이야기-측근정치의 구조’는 환관에 대한 모든 것을 속속들이 파헤친

다.

특히 저자는 환관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당(唐), 명(明)나라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측면을 흥미롭게 펼쳐낸다.

환관은 동양, 특히 중국에만 존재하지는 않았다. 저자는 고대 오리엔트에서 전제군주와 함께 탄생한 것으로 본다. 페르시아인들에게 환관 사용은 하나의 풍습이었다.

오스만제국에서도 후궁인 하렘에서 환관들이 복무했다. 이때는 백인환관보다 흑인환관이 더 중용되었다고 한다. 야만인일수록 충성심이 더 강하다는 인식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은나라 같은 신정국가에서는 군주의 신성성과 비밀 유지를 위해 환관을 만들었다. 그들은 군주의 비서이자 측근이었

다.(그런 관점에서 보면 환관은 비서의 원조라고 할 수 있다)

종교적 전제국가에서 황제의 공식적인 비서는 내각의 대신이었다. 그에 비해 환관은 그림자 비서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환관이 더 권세를 떨쳤던 것은 군주와 대신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이다.

주로 환관의 공급은 이민족에게서 취해졌다. 비밀보호와 음모의 손길이 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차 피정복자를 거세하는 대신 궁형(생식기를 없애는 형벌)이 대체로 자리잡았다.

당나라가 끝나갈 무렵 광둥에 남한(南漢)이 세워졌다. 군주들은 유능한 가신이나 우수한 성적으로 시험에 합격한 자들을 미리 거세 후 채용했다. 당시에 환

관의 수가 2만에 달할 만큼 ‘환관왕국’의 위세는 만만치 않았다.

그에 비해 송나라 때는 환관 활동이 수그러들었다. 송 태조가 환관이 하는 짓에 넋더리를 낸 나머지 50명으로 제한했던 것이다.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은 유교국수주의에 입각해 자궁(宮)금지령을 내렸다. 신체를 보존하는 것이 유교의 근본이라는 이념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떤가. 엄밀히 말하면 현대는 ‘환관의 망령’이 도처에서 암약하는 시대다. 환관을 탄생시킨 것은 권력기구인데, 형태는 달라도 어느 국가나 사회에서나 권력기구는 존재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거에 환관을 사용하지 않는 나라들이 세계를 리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휴머니즘과 할라주의 하에서 신체를 훼손하는 비인간화와 ‘그림자 권력’이 들어설 틈이 없다. 그러나 작금의 환관은 없을지라도 ‘환관적 인간’이 여전히 도처에 존재한다.

“기업이든 국가든 권력에 직속한 채 권력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 능력이 없는 측근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가 얼마나 큰지는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 권력에 직속해 정보를 독점하는 측근 그룹에 내포된 환관적 존재는 현대에도 무관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아이필드·1만5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뿌리 들린 나무 통해 현대인의 불안·방황 묘사



제39회 이상문학상 작품집
김숨 외 지음

한국문학을 사랑하는 모든 독자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이상문학상 작품집’이 출간됐다. 한 해 동안 발표된 작품들 중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되는 중·단편만을 모아 신는 작품집은 현대 소설의 흐름을 대변하는 미학의 절정으로 평가받는다.

올해는 사회 이면의 그림자를 환상적 기법으로 그려낸 김숨 작가의 ‘뿌리이야

기’가 대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소설은 주인공의 삶을 뿌리와 연계해 재생 과정으로 형상화 한다. 식민지 지배, 전쟁, 기계문명으로 대변되는 폭력이 어떻게 존재의 불안을 심화시키는지 담담하게 추적한다.

심사위원들은 선정이유서에서 “뿌리 들린 나무의 모티프를 통해 작가가 독자에게 보여주는 것은 산업화와 기계문명으로 인해 뿌리를 상실해가는 현대인의 불안과 방황”이라며 “옆으로 뻗어나가는 천근성 뿌리와 깊이 내리박는 삼근성 뿌리의 조화와 공존을 통한 새로운 삶의 가능성까지 제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작 외에도 김숨 작가 자전 대표작 ‘원손집이 여인’, 대상과 치열한 경합을

벌었던 우수상 수상작 이장욱 ‘크리스마스캐럴’, 조정란 ‘기도에 가까운’, 이평재 ‘흙의 멜로디’를 비롯해 전성태 ‘소풍’, 손흥규 ‘배회’, 윤성희 ‘휴가’, 한유주 ‘일곱 명의 동명이인들과 각자의 순간들’이 실렸다.

김숨 작가는 수상 소감에서 “이상심대 내내 저를 지켜준 것은 ‘소설을 쓰는 시간’이었다. 청탁을 받지 못하던 시절에도 저를 지켜준 것은 ‘소설을 쓰는 시간’이었다. 수인(四人)이 법정에서 선고 받은 실형 기간처럼, 소설을 쓰는 시간은 저를 꼼짝없이 가두는 동시에 저를 해방시켜주었다”며 정진의 결의를 다진다.

〈문학사상·1만38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따뜻하고 진솔한 ‘인간 박완서’



박완서 산문집 1~7
박완서 지음

지난 2011년 1월 22일, 한국 문단은 박완서 작가를 떠나보내고 큰 슬픔에 잠겼다.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한국 현대사의 아픔을 고스란히 겪었던 작가는 1970년 불혹의 나이에 문단에 데뷔해 40여년간 수많은 걸작들을 남겼다.

박완서 작가 4주기에 맞춰 그의 첫 산문집을 포함한 초기 산문집 일곱권

이 출간됐다. 1977년 첫 작품인 ‘짚씨에게 보내는 갈채’를 시작으로 1990년까지 작가가 펴낸 것들이다.

각각의 제목은 1권 ‘쑥스러운 고백’, 2권 ‘나의 만년필’, 3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4권 ‘살아 있는 날의 소망’, 5권 ‘지금은 행복한 시간인가’, 6권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애수’, 7권 ‘나는 왜 작은 일에만 분개하는가’이다.

박완서 작가의 만발 호원숙 수필가가 출간 과정을 함께 했으며, 각각의 표지를 장식하는 이미지들은 이병률 시인과 박완서 작가의 손녀 김지상씨가 사진으로 찍은 작가의 유품이다.

〈문학동네·각권 1만35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게임동 홀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연말 송년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시공

4. 옥상 시공 후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텔 달린트 이영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특허 제10-097724호, 특허 제10-1221196호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